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말씀 : 마태복음 28:1-20

요절 : 마태복음 28: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놀라운 정도의 기술 문명을 자랑하면서 인간의 기대 수명도 늘어나 조만간 천년정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떠들어 댔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이렇게 별별 떨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로써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한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각종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죽는 존재가 되었고, 그 때부터 죽음이 우리 인간을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희망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만 그치지 않고 원래 영생했던 존재로 다시 돌아가 우리들도 ‘영생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말씀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증거(1-15)

먼저 27:65,66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서는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가짜뉴스를 전파하고 다닐 것을 염려하여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코로나 보다 더한 전염병같이 여겨졌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는데 힘센 장정 서너 명은 있어야 돌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큰돌 위에 찰흙이나 밀납 같은 것을 발라 인봉했습니다. 무덤을 열려고 시도하는 그 어떤것으로부터도 보호하려고 이중 삼중으로 보안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큰 돌과 인봉, 그리고 경비병까지 더해서 더이상 예수를 따르는 전염병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의 부활 예언은 완벽하게 막아지게 되었습니까?

1. 빈무덤(부활의 증거)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후 첫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 삼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삼일만에 다시 살아 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16:21, 17:23, 20:19)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한한 슬픔을 안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주기 위해 누군가 돌을 굴려줄 것을 기대하며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 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위에 앉았습니다.(2) 큰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왕상19:11-12, 사5:4-5, 사29:6) 큰 돌로 막고 인봉까지 하였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아보고자 작은 돌들을 앞에 놓았지만 이것들은 산산히 부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는 비어있는 무덤을 공개해 주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 과정을 바로 눈 앞에서 지켜본 경비병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4) 죽은 자를 지키던 자들은 오히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고, 얼마 전까지 죽은 예수님은 산자가 된 것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고 “빈 무덤을 보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빈무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입니다. 로마 총독,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들입니다. 이들이 힘을 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시체를 도둑맞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아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체는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무덤이 비어 있으려면 누가 훔쳐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훔쳐 간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계집종 앞에서도 제자인 것을 부인했는데, 이런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체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6절을 다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 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 나셨느니라” 여기서 ‘살아나셨느니라’는 헬라어로는 수동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가 일으킴을 받았다.” 즉 하나님이 죽어서 무덤에 누워 있던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임의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세 번이나 삼일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자신이 하신 약속을 확실히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선거철이 되자 후보들은 수많은 공약들을 내세우지만 이루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악해서 만이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

수 있습니다. 장차 올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우리 몸의 부활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셨고 영원한 생명을 수여해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후에 그 증거로써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빈 무덤’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 고대 유적들은 대부분 무덤들이 많습니다. 이집트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 메카에 있는 마호메트 무덤, 진시황제의 무덤, 조선시대의 왕릉들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무덤의 규모도 크고 화려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세계적인 성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면 꼭 무덤에 가서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고 기도하고 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인증샷을 찍어오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2. 두 여인(부활의 증거(증인))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두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두 여인이 무덤에 가서 향품이라도 발라 주고자 한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상황에 따라 그들의 사랑과 헌신과 존경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다. 형제들은 큰소리만 치기 잘했지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줄행랑을 쳤습다. 우리 UBF 모임도 실은 형제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여인들이 많습니다. 사라베리선교사님을 ‘마더베리’라고 부르게 된것도 그가 우리 모임이 작고 보잘 것이 없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처음의 사랑으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모임을 섬겨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7부에도 여러가지 복음역사를 섬기면서 겪었던 아픔속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변치 않고, 주님의 양들을 변함없이 섬기고 있는 제2, 제3의 마더 베리와 같은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임에 이런 믿음의 여인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부활의 메시지와 빈무덤을 증거로 받았습니다. 이때 그들에게는 무서움이 있었지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지만 여인들에게 벌써 부활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천사로부터 부활을 전해 듣고 제자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달음질을 시작했습니다.(8) 여인들은 얼마나 빨리 뛰었을까요? 기쁨과 감격에 젖어 신발이 벗겨져도 모를 정도로 달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평안하냐” 여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신줄을 알아보는데 불과 몇 초가 소요되지 않았습다.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발을 붙잡는 행위는 높은 사람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또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여인들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지난주에 코로나로 인해 오묘한 나안드레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써 영원히 이별했다고 생각했는

데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다니... 예수님을 만나고 여인들은 어찌된 일인지 더 무서움에 휩싸였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나시고 먼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주었던 명령과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몸쓸놈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들” “내 인생에 도움이 안되는 놈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는 피로 맺어진 혈육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네 어머니라” 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혈육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19:26,27) 제자들을 모두 형제로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히 흩어져 버렸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형제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여인들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해서 기록해야만 했다면 여인들을 내세우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법정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채택되지도 않았습다. 탈무드는 “여자가 내 놓은 증거는 하나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는 “여자들의 증언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여자들은 경솔하고 뻔뻔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마태가 부활을 조작하고 이를 유대사회에 합리적으로 증거하고자 했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나 존경받는 인물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마태가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3. 경비병들(부활의 증거(증인))

11~15절 말씀은 돈을 받은 경비병 이야기입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야기를 철저히 막고자 했다면 그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철저히 지켜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막강한 권력으로도 무덤과 시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부활의 또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의 사병들로 아마도 대제사장이 가장 신임하는 이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도 동원되었을 것이고 또 무덤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심자가사건에도 무관하지 않으며, 또 부활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자들입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여인들보다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류 최초의 부활의 현장에 있던 자들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는 초자연적인 한편의 4D영화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입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라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돈을 많이 받고 가르친대로 하였습니다. 장로들의 코치를 받고 ‘제자들이 도둑질하였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잠을 잤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로마군인이었다면 경비 중에 잠을 자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에 매수되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돈에 모든 축복을 넘겨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이 모든 복을 팔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경비병들과 장로들, 대제사장들의 담합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전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회자 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 사실을 왜곡시켜 거짓으로 만들어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의가 득세해도 결국에는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부활 소식은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온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숨기기 위해 뇌물을 쓰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는 마치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려보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이는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상의 증거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님을 강력하게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죽음은 가장 강력한 명제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2차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은 20세기 리더중에서 가장 자신감이 넘치고 겁이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총에 맞고도 말짱한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은 없다." 그는 이처럼 어떤 전투에서도 이길 자신감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이 되어 죽음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자신감을 잃어 버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게는 희망이 없다" 2차대전의 영웅 처칠도 죽음앞에서는 고개를 떨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의욕과 소망을 앗아가 버립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언젠가 죽을 것을 생각하면 허무하기만 하고 의욕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조금만 아프고 힘들어도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혹시 죽지 않을까 벌벌 떨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는 온통 잿빛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세계경제는 곤두박질 쳐서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제 회복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극심한 혼란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이 순간에도 철저히 우리들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는 천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번 죽은자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는 죽은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루 더 지나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이 나사로에게 임했을 때 나사로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인류는 원래부터 죽음에 굴복당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영생(Living Being)하는 존재였습니다. 원래는 영생하는 존재였던 인류가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에게 죽음은 더 큰 고통과 죄로 병들 기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박혀 죽으심으로 죄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의 모습 그대로 영생하는 존재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안에서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망을 마음껏 비웃고 조롱하며 살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때에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세기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부활의 복음으로 죽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속에 경기장에 들어서 사자의 밥이 되었지만, 그들은 죽음 앞에 너무나 초연한 모습으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순교는 '부활'을 입증하였고 '부활의 믿음'을 로마 시민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수많은 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죽음의 두려움을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 죽음은 더이상 두렵거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I. 가라(16-20)

그러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열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뵈옵고 경배했습니다. 천사도 예수님도 모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갈릴리로 가라'로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26:32, 28:7, 28:10) 왜 이렇게 '갈릴리 갈릴리' 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 입니까? 갈릴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고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던 곳입니다. 처음 사랑이 싹튼 곳이고 경험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두려움 때문에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믿음, 부활신앙을 심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고 첫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묻혀 살아가면서 약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다시한번 마음을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루신 구속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승천하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명령을 하시는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다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빌2:10) 이로써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 권세는 옮기지 않고 폐하여 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절대권세입니다.(단7:14) 또한 예수님의 권세는 심판의 권세입니다. 요 5:27-29절은 말합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절을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심을 영접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주어지는 복음역사 감당에 필요한 모든 영적권세를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19,20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교 지상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는 주동사와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만 주동사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주동사를 보조하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 한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도록 하는데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열한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제자가 살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 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지상 명령(the Great Commission)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가야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공부하는 것으로는 결코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개척초기부터 일대일을 영적인 전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마다 일대일을 못하거나 하면 일대일전투 신고식을 시키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대일공부를 해주지 않는 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들이 생기지 않고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들에게 일대일 공부를 해주지 않으니 받기만 하여 고인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물이 받기만하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인물이 썩게 되듯이 흘러주지 않을 때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목자가 CBF와 그리고 JBF의 자녀들과 관계성을 맺고, 한팀 이상의 일대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7부의 모든 목자님들이 일대일을 해주기 위해 가야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군대에 묶여 있는 세호, 기연복동님들에게도 가서 일대일을 해주어야겠습니다. 가서 모든 양들을 일대일 해주고 제자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세례란 예수님과 연합을 뜻합니다. 과거 죄 가운데 살던 옛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그대로 가르쳐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공부는 단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성경공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양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명령을 주신지, 이제 천년이 두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올해 코로나 불통이 신천지로 튀더니 그동안 그렇게 공공 숨어 들어 활동하던 신천지 세력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그 세력도 약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덕분에 캠퍼스 복음역사 환경은 굉장히 척박해지게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단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첫단계에서부터 막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 역사를 섬겨야 할지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새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캠퍼스 역사를 섬길 새로운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캠퍼스에 강을 내서 그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도전함으로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